

회의개최보고

- 회의명 : 구 서울구치소 보존대상시설 및 관계자료 조사연구용역
- 일 시 : '88. 7. 18 (월) 14:00 - 16:10
- 장 소 : 구 서울구치소 회의실
- 참석자 : 15명
 - 역사2, 독립운동4, 언론1, 건축1
 - 도시계획1, 조경1, 서울시5

계	공원개발부장	공원과장	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계장 김경

회의결과 (요약)

내 용	조 치 결 과
○ 공원의명칭 : 독립공원, 서대문독립공원 서울독립공원, 독립관	○ 서울시 지명위원회 회부
○ 사형장 : 공개, 일부공개, 비공개	○ 법무부 의견 수렴후 결정 (사적지 지정시 비공개 원칙)
○ 독립관, 도서관 규모 및 양식 - 독립관 : 1,200m ² - 도서관 : 5,400m ²	○ 한식, 양식, 한국성 (한국적 전통) 을 나타내는 참신한 양식 ○ 규모 : 건축전문가 협의, 가능한 신용하 (안) 수렴
○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로서 존치 여부	○ 사적공원 조성으로 시설하지 않음
○ 주차장 확보	○ 교통기획과 협의 (지하주차장 건설)
○ 의주로변 사유지 (1,592평) 철거 하여 공원으로 확보	○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약 80 억 소요)
○ 동상건립 검토 (독립투사등)	○ 독립문, 독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송계 서재필박사 동상 건립 검토
○ 서대문 구민회관 부지 확보	○ 사적 공원으로 경관상 불합치

첨 부 : 회의록 1부.

구 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 및 관계자료의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 일 시 : 1988. 7. 18 (14:00-16:00)
- 장 소 : 구 서울구치소
- 보 고 자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교수 신 용 하
- 내 용
 - 신용하 : 서울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교도 (古都) 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많이 보존되지 못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기회있을 때마다 역사적 자료를 복원하는것이 필요한데 그런의미에서 구서울구치소 이적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는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 정준영 : 위령탑을 전통적인 부도양식으로하고 독립관을 전통적인 한옥건물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신용하교수께서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 역사는 만들어 질 뿐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적공원은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압도할 만한 정신이 깃든곳이므로 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와 같은시설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구치소와 연접한 의주로변 사유지는 (주거지 약 1,500평정도) 시각상 불량할 뿐아니라 지역공원 성격상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정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신용하 : 사형장은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문제인데 사형장과 함께 사형장 둘레의 담벽을 보존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 및 특수목적의 특별관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은 사형장과는 담으로 분리 구분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준영 : 칠성각 위에 올라가는 정신외에는 사형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사형장위에는 아무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하여는 서대문독립공원 보다는 독립관 또는 독립문 독립관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하 : 명칭에 대하여는 지난번 자문회의시 독립공원, 서울독립공원, 서대문독립공원의 3안이 있었는데 서대문독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 사형장 위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설치의 재검토하겠 으며 서울구치소와 대로를 차단하는 상점가를 철거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자문회의 의견으로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는 오늘 이자리에서 의견제시는 될수 있으나 결정 될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지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문회의 의견을 제출하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나상기 : 구 서울구치소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였을 경우 여기에 오는
흥미롭다고 할까 호기심을 끄는것이 감방이다
사형장, 감방을 보존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사형장의 비공개
원칙에 반대합니다.
서대문구치소 공원의 볼 것은 사실 사형장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형장 비공개가 아닌 밖에서 유리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하고 돌아서 나가도록 접근로를 설치하면
되므로 완전 비공개에는 반대합니다.
또 독립관 복원계획의 규모 ($60\text{m} \times 20\text{m} = 1,200\text{m}^2$) 는
한옥으로서는 규모가 너무크고, 독립도서관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큰 도서관이 별로 없습니다.
사적공원의 특성을 살리려는 독립공원내 시설의 일부로서
독립관과 도서관의 규모가 조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우성 김종영 선생이 제작하여 파고다공원에 설치하였던
3.1운동 기념탑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 신용하 : 독립도서관의 규모는 $1,400\text{m}^2$ 로서 정독도서관의 1/4이며
남선도서관의 절반보다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도서관
보다 약간크고 용산도서관보다도 약간 클 정도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규모보다는 조금 클정도이므로 현재 제시한
것은 案 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건축
전문가들과 조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독립관의 규모도 건축전문가가 판단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 나상기 : 목조건축물은 중량감이 상당히 있는데 조감도의 독립관과
도서관은 실제 스케일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배치에 있어 동적인것과 정적인 것을 구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상당히 시끄럽고 또한 도서관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 시끄러울것이므로 배치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 경희대학교 안과 서울대학교안을 절충한 서울시안에 대하여 설명함
- 나상기 : 사형장 주변에는 여유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관과 도서관의 위치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하 : 독립문과 독립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독립관은 외형만 전통양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과 같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예약하기가 매우 힘들정도입니다. 따라서 외형은 한국독립관이고 내용적으로는 문화 행사를 할수있는 장소가 되는것입니다.
- 이규목 : 건물의 양식에 대하여 신용하교수께서 독립관은 한식, 도서관은 양식으로 제한했는데 건축가의 한사람으로서 한식이나 양식으로 제한하지말고 한국성 (한국적 전통) 을 나타내는 참신한 양식으로 배경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도 중심공간 비어있는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공원도 가운데는 공간이 비어있고 녹지, 잔디, 산책로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독립문에서 독립관을 지나 구치소 보존건물앞까지 강한축 (직선이 아닌 보행축) 이 형성되어 긴밀한 일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징조형물도 기념성보다는 예술성을 나타내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규모는 너무크므로 친근감이 있는 예술성이 강조된 규모 기준으로 제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어린이들은 놀이터보다는 놀이터이외의 장소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즉 모든 공간이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공원의 규모나 성격상 놀이터를 별도로 두지말고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과 조화된 놀이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따른 놀이시설 설치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시관에는 해방이전뿐 아니라 해방후의 정치적인 사건들(4.19 , 5.16 , 10.26 등)과 관련된 약 40년을 정리할수 있는 공간을 두어 현대 정치사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하 : 기본생각은 독립관을 복원하려는 생각입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도 처음에는 지붕을 기와로 엮을 수 없다고 반대했었으나 나중에 동판으로 지붕을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독립관 만큼은 외형을 전통양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후 정치사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문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규복 : 한옥의 규모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독립관은 그대로 복원하고 그옆에 문화행사를 하는 건물은 따로 건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하 :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나상기 : 독립관은 친근감이 없습니다.
독립문에서 독립관 그리고 구치소 보존건물까지 연결되는 넓은 공간이 있는 축을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윤성 : 어떤것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시각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1) 사적인 것에 중점

- (2) 근린공원으로서 사적인것과 근린공원인것이 반반
- (3) 근린공원이 중심인것등 3안중에 하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 신용하 : 근린공원과 사적인것이 반반입니다
- 장호강 : 독립문으로 부터 독립관으로 들어가는 축을 형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적인 의미를 더부여하고 독립관의 양식은 한식으로 하고 도서관의 명칭은 서재필박사의 명칭을 남기기 위하여 아호를 뺏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호 : 보존대상건물중 구여사는 이전하는것 (서울대학교 안) 보다 구여사를 현장 (지하) 에 복원하는 서울시 안이 좋습니다. 망루는 1개소보다 2개소로 보존하는것이 사적공원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의주로변에 연접한 시각적 군락공간 (사유지) 은 막대한 예산과 시민들의 날카로운 관심이 있더라도 차폐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사적공원으로 또하나의 관광지가 되는데 연간 70만명을 추정하므로 넓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차를 어디에다 수용합니까 ?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서울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간확보가 되어야합니다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은 이공원이 온국민에게 역사성을 남기기 위한 곳이므로 서대문에 국한된 지역공원이 아닌 바에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이 도수체조와 일광욕을 하던 소운동장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희 : 나교수님보다는 신용하교수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독립관과 도서관의 규모는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큰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양식은 특정종교를 떠나 상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조 : 31,500평중 사적지는 8,800평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관내에는 근린공원이 없으므로 공원면적의 50%는 서대문 지역 주민에게 할애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려면 좋겠습니다. 또 사적 + 근린공원이므로 이 지역 근린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유용하게 쓸수있는 구민회관을 지을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만석 : 주차장확보뿐 아니라 인파의 진출입에 대한 교통.동선을 어떻게
(기술심사관) 유도할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ex 지하보도등)
- 김영상 : 지금 현재 공원의 면적과 입지하려는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체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것이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독립관의 크기와 양식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독립관은 원래 모화관으로 다락집이었다가 단층집인 모화루로 바뀌고 1890년대 독립문이 건립되고 모화관은 독립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립문에서 독립관에 이르는 독립공원과 사형장을 일반시민 (국민)의 독립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사적공원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령탑은 전통적인 부도양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독립운동과 관심있게 떠오르는 것은 태극기 이므로 부도정신과 태극기를 조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상건립은 한장소에 여러개 있으면 오히려 그정신이 흐려지므로 독립지사와 관련된 지역에 설치하는것이 좋고 다만 이장소와 관련하여 볼때 송제 서재필박사 동상은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환 : 다른 문제와는 달리 구 서울구치소 이적지 공원조성에 대하여 서울시의 신중한 검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이 조성된 후 사적공원으로서 잘되었으나 안되었으냐는 몇년이 지나보아야 합니다
공원내 확장실 시설은 크게 보존되는 확장실과 신축되는 건물의 확장실 (강당, 도서관) 로 구분되는데 충분치 않다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확장실이 없으므로 별도의 확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및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깨끗하고 모범적인 확장실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 서재필박사 유족회 : 1안 (경희대학교안) 을 보고 상당히 걱정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사적공원으로의 조성 및 송제 서재필박사 동상건립의주로를 송제로로 개편 해주도록 건의 했습니다
명칭은 독립공원이나 서대문독립공원은 환영합니다
독립문과 독립관 사이에 송제 선생의 동상을 40만 씨족을 대표해서 건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명원 : 원래 독립관의 자리가 어디인가 ?
(전문교부장관) 일본사람들이 왜 이자리에서 구치소를 두었느냐 ? 조선총독부를 경복궁앞에 지었듯이 혹시 독립운동사상을 말살하기 위하여 독립공원 사이에 구치소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구치소 도로 건너편까지도 독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꿈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의 파리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독립문 자리를 옮긴것이 잘못입니다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독립문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문에서 독립관에 이르는 축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구치소에 이르는길을 성재로로 하였으면 합니다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역사를 만듭니다. 아이들한테 역사를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당초 108만평일때 너무 크다고 했지만 지금은 좁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지금은 크지만 조금후엔 결코 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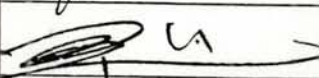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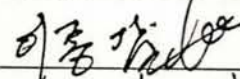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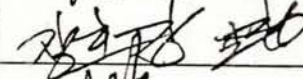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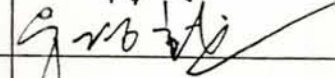


독립관도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뜻있지만 민주역량을 훈련하는 곳으로도 중요합니다. 신용하교수의 안에 찬성합니다. 확장실, 주차장문제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존즈 홉킨즈 대학의 경우 조경형편상 지상은 2-3층으로 제한했지만 지하는 수십층으로 내려갑니다.

- 나상기 : 의주로변 사유지보상의 경우 노변은 400-500만원 ,노변 뒤 쪽은 200만원 정도면 되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주로변 사유지는 보상하여 공원으로 더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 도명정 : 사형장을 폐쇄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일부 개방하는 것이 (올림픽기획관) 좋을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동상 기념비를 건립할 수 있는 장소로 백려되어야 합니다.

참석자 현황

성명	서명	비고
이현희		
김영상		
이병호		
신수범		
장호강		
정준영		
유경환		
강한필		
백윤성		
이경희		
나상기		
강병기		
강홍빈		
오휘영		
안봉원		
이규복	